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2026이 열린 가운데, 교내 구성원이 주축이 된 스타트업 세 팀이 참여했다. 의료·로봇·농업 등 AI의 가능성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한 세 기업의 대표를 만나본다.



AI 반려로봇 '터보'

자율·자유전공학부의 전공 진입 선택을 마친 가운데, 수업·공간 운영 부담과 예산 편성 불이익 등의 우려에 대해 알아본다.

대학주보

양캠 비대위 기자 회견 “등록금 인상 반대”

김예찬 기자 yechan@knu.ac.kr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두고 양 캠퍼스 학대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 16일 양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 기조를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제캠 박병준(국제학 2017)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결정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인상 결정이 과연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와 책임 있는 판단이었는지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이번 등록금 인상이 단년도 조정이 아닌 정책 기조의 변화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학교가 재정 설명회를 통해 향후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등록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기존의 등록금 동결 중심 정책에서 사실상 방향 전환을 선언



양 캠퍼스 총학생회 비대위는 지난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장학금Ⅱ 유형(대학 연계 지원형)이 폐지되는 시점은 27년도이기에 올해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예찬 기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학생 부담의 누적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국면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인상은 단순 누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부담을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6년은 국가장학금 제2유형 등 제도적 완충 장치가 여전히 유효한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학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인상을 선택한 점은 납득하기 어

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캠 황희원(응용통번역학 2024) 비대위원장은 등록금 인상 논의 과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재정 설명회와 간담회가 열렸지만 현재 구조는 등록금 고지서 발행 직전에야 핵심 결정이 공

유되는 사후 설명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표자가 매년 교체되는 학생 사회 특성상 정보가 충분히 축적·검토되기 전에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등록금 고지서 발행 전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전 협의 구조 마련 ▲고등교육법 취지에 부합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법인 전입금 확대 방안과 등록금 인상분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우리신문이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나 수용 가능한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지를 묻자, 박 비대위원장은 “0.1%를 인상하더라도 인상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등록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전제하면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3.1% 인상안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는 오는 20일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20일 열리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기사는 추후 온라인 별행될 예정입니다.

자율전공학부 47.8% 경영대학으로…문화대학은 0명

권도연 기자 khudy94@knu.ac.kr

【서울】 자율전공학부(자전) 확대 개편 이후 첫 전공 신청이 마무리됐다. 경영대학 내 학과로의 진입을 선택한 학생은 66명으로, 기준 차출 인원 55명에 비해 11명이 늘었다. 반면, 문과대학의 경우 선택자가 나오지 않았다. 전공 선택 자격 요건 및 신청 기간은 국제캠 자유전공학부와 동일하다.

전공 선택 결과는 ▲정치외교학과 1명 ▲행정학과 1명 ▲미디어학과 1명 ▲사회학과 1명 ▲무역학과 2명 ▲경제학과 2명 ▲경영학과 28명 ▲회계세무학과 13명 ▲빅데이터

터응용학과 25명 ▲Hospitality 경영학과 2명 ▲글로벌 Hospitality 관광학과 1명 ▲의상학과 2명 ▲수학과 4명 ▲물리학과 6명 ▲화학과 15명 ▲생물학과 6명 ▲약과학과 13명 ▲글로벌리더 전공 15명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 기준으로는 ▲문화대학 0명 ▲정경대학 8명 ▲경영대학 66명 ▲호텔관광대학 3명 ▲생활과학대학 2명 ▲이과대학 31명 ▲약학대학 13명 ▲자율전공학부 15명이다. 이는 자퇴생 3명, 자퇴 예정 2명, 휴학생 37명을 포함한 미선택자 42명을 제외한 결과다. 실질적 전공 선택 인원 138명 중 66명이 경영대학 내 학과로의 진학을 선택해 약

47.8%의 비율을 차지했다.

자전 학생들은 의약학계열, 간호과학대학, 예체능계열,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과를 제외하고 서울캠 내 모든 전공으로 진입 선택이 가능하다. 현재는 학사지원팀의 학적 이동 입력 단계로 최종 승인은 이번주 내에 이뤄진다.

자전 이정희 학부장은 “2024학년까지는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선호도가 높았었는데 2024년 첨단학과로 지정된 이후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로 개편되고 인원이 늘면서 2025학년 학생들부터는 선택할 수 없게 됐다”며 “원래 정디로 많이 몰렸던 인원이 이과대 다른 학과나 약

과학과로 조금 고르게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자전은 학생들이 많은 학문 분야를 접하고 다양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 학부장은 “학생들이 문과대학과 철학과부터 해서 호텔관광대학 조리푸드디자인까지 다채로운 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전공 탐색 과정을 적성 검사를 통해서 자기 탐색을 하는 것부터 해서 각 단과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하는 토크콘서트, 현직자 선배 멘토링과 같이 체계적으로 구성해 다양한 탐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경영대학, 이과대학의

학생들의 선호가 집중된 양상에 관해서는 “사회적 변화도 있고 1학년 학생들이라서 그런지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다”며 “학부모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취직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전공 선택을 하도록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학부장은 “2025학년도 서울대 인문대학 수시모집에서 철학과가 최고 경쟁률을 달성한 것처럼 미래 사회에서 분명 언어나 문화와 같은 인문학 분야가 주목받을 것”이라면서도 “인문학이 기반 학문이 돼야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선택에 있어서는 용기나 결단이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